

# 그린라인·자연환경 “우리가 무등기 챔피언”



제11회 무등기 사회인야구대회 광일토너먼트에서 우승한 그린라인 선수들이 박주용 감독을 행가래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제11회 무등기 사회인야구대회 무등토너먼트에서 우승한 자연환경 선수들이 정상현 감독을 행가래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전남 사회인야구인들의 ‘가을잔치’인 무등기 야구대회의 11번째 주인공이 탄생했다. <관련기사 20면>

광주일보와 전남문화가 주최한 제11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야구대회 결승이 7일 영광대마산단야구장에서 진행됐다.

광일리그에서는 그린라인이 시원병원을 상대로 뜨거운 공격력을 과시하면서 18-7로 승리, 우승팀이 됐다.

그린라인은 1회 투타자 주규완의 볼넷을 시작으로 공격을 열었고 1사 만루에서 나온 최영의 3루타 등을 묶어 3점을 만들었다.

2회에도 2점을 보탠 그린라인은 5회 1사 1루에서 나온 주규완의 3루타 등을 묶어 대거 5점을 뽑아냈다. 4회에도 4명의 주자가 홈에 들어오면서 일찍 승부의 추를 기울였다.

주축 선수들이 부상 등으로 대거 빠지면서 어려움을 겪은 시원병원은 4회 뒤늦게 시동을 걸었다.

이중욱이 4회말 안타로 출루한 뒤 도루까지 더해 3루까지 향했고, 견제구가 빠진 사이 홈에 들어왔다.

5회 1점을 더한 시원병원은 6회 3득점에도 성공했지만 초반 실점이 아쉬웠다.

그린라인 선발로 나온 조진훈이 3이닝 무실점 8탈삼진의 호투로 승리와 함께 광일리그 최우수 선수 트로피를 차지했다.

2018년 타요 바리스타즈를 이끌고 무등리그 우승을 이끌었던 박주용 감독은 그린라인이라는 이름으로 새로 출발한 시즌에 광일리그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 광일리그, ‘그린라인’ 뜨거운 공격력 과시...시원병원에 18-7 승리 무등리그, ‘자연환경’ 초반 대량득점...에어패스파죽지세 추격 꺾어

박주용 감독은 “팀을 리빌딩 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나왔는데 첫 대회부터 우승이라는 좋은 결과를 내 기분이 좋다”며 “이번 결승에서는 팀원들이 끈고루 땀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부분도 좋았다. 코로나로 대회에 많이 나가지 못했는데 익숙하고, 의미있는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돼서 더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우리 팀은 ‘워팀’으로 표현할 수 있다. 하나로 뭉치는 팀이고, 고2, 고3, 대학교 1학년 등 젊은 선수들이 많다”며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많이 가져보려고 하고, 선수들을 키우려면 성적보다는 경험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려고 한다. 좋은 경험을 쌓은 시간이 됐다”고 언급했다.

2017년 무등리그 우승팀인 자연환경은 에어패스파죽지세를 17-10으로 제압하고 다시 한번 무등기 정상상을 밟았다.

자연환경은 1회초 2실점을 했지만 1회말 공격에서 바로 승부를 뒤집었다.

1사에서 양건우의 볼넷과 박래준의 중전안타로 1사 1-2루, 최용희의 2루타로 1점을 더한 자연환경은 2사 만루에서 나온 정상현의 적시타로 3-2역전에 성공했다. 이어 류영광의 내야 안타와

포수 실책까지 묶어 1회 대거 5점을 뽑아냈다.

2회에도 4점을 더한 자연환경이 3회 위기를 맞았다.

9-2로 앞선 상황에서 김만철로 투수를 교체했지만 볼넷이 나왔다. 구용준이 다시 마운드에 올랐지만 연속 볼넷이 기록되면서 무사 만루, 밀어내기 볼넷까지 기록됐다.

에이스 박래준이 급히 출격했지만 장덕진에게 2타점 중전 안타를 맞는 등 9-7까지 점수가 좁혀졌다.

3회말 박래준의 좌중간 2루타로 자연환경이 다시 격차를 벌이자 에어패스파죽지세에서 ‘2004년생’ 어린 투수 이세진을 투입해 패기로 맞볼을 냈다.

하지만 자연환경은 박래준의 중전안타로 문을 연 5회 볼넷 두 개로 만루를 채웠고 류영광의 중견수 희생플라이와 최정재의 싹쓸이 2루타 등으로 16-7을 만들면서 상대 추격지를 꺾었다.

우승을 지휘한 정상현 감독은 “최선을 다하고 팀을 생각해서 경기를 하자고 팀원들에게 이야기를 했다. 팀원들 덕분에 오랜만에 다시 무등기 우승을 하게 됐다. 대회 첫 경기에서 이영준이라는 좋은 선수가 있는 파트너스와의 경기가 힘들었는데, 그 경기를 잘 풀어서 우승까지 이르게 됐다. 팀원들을 믿고 경기를 했다”

고 팀원들에게 우승의 공을 돌렸다.

또 “우리 팀은 20년 넘게 활동하고 있다. 눈빛만 봐도 알 정도로 오랜 시간 함께 했다. 한 명이 안 되더라도 다른 선수가 해준다는 믿음이 있다. 선수들이 서로 믿고 하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대회를 위해 광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회장 나훈)와 영광야구소프트볼협회(회장 최영민)가 힘을 보탤 예정이다.

광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가 공정한 대회를 위해 심판을 파견했고, 영광야구소프트볼협회는 경기장 관리와 경기 운영을 맡아 안전하고 수준 높은 대회를 이끌었다. 전남도와 KIA 타이거즈도 대회 후원에 나서 지역 사회인야구인들의 축제에 동참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무등기 결승

#### ◆광일리그

그린라인 3 2 5 4 0 3 1 - 18

시원병원 0 0 0 1 1 3 2 - 7

#### ◆승리투수 : 조진훈

#### ▲무등리그

에어패스파죽지세 2 0 5 0 0 3 - 10

자연환경 5 4 2 0 5 1 - 17

#### ▲승리투수 : 박래준

### 광일리그 ‘그린라인’

### 최우수 선수 인터뷰

### 무등리그 ‘자연환경’

## “원팀정신 뽐뽐뽐... 감회 새롭다”

### 그린라인 조진훈



“올해 ‘그린라인’ 이름을 걸고 처음으로 거둔 우승이에요. 창단 이후 10년 동안 ‘타요 바리스타즈’ 이름으로 우승을 많이 해 왔지만, 오늘날만큼 감회가 더욱 새롭습니다.”

광일리그 MVP 그린라인 조진훈(40)은 강력한 직구를 무기로 그린라인 우승을 견인했다. 그는 선발 투수로 등판해 삼진을 8개나 잡아내고, 3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냈다.

조진훈은 “목표는 처음부터 우승이었다. 초반부터 전력을 다해 승부에 임했던 게 승리의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초구에 집중했습니다. 타자와 싸움이 길어지지 않도록 초구에 확실하게 승부를 보려고 했었지요. 변화구보다는 직구를 위주로 힘있게 던졌던 게 통했던 것 같습니다.”

조진훈은 10년 전 타요 바리스타즈가 창단할 당시부터 함께 해 온 원년멤버다. 그는 이번 승리의 비결을 오랜 시간 함께 쌓아 온 ‘원팀 정신’으로 꼽았다.

“그린라인 팀은 감독님 아래에서 ‘워팀’이라는 생각으로 뽐뽐뽐 뽐뽐 뽐뽐했습니다. 경기 중 모두가 한 목소리로 서로를 응원한 것이 특이한 점이었습니다.”

조진훈은 “이제 그린라인으로 새 출발을 했으니, 꾸준히 여러 리그·토너먼트 대회에 출전해 우승을 이어가겠다. 그린라인의 명성을 높이는 것만이 목표다”고 각오를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어렵게 우승했으니 목표는 2연패”

### 자연환경 최용희



“3년 전 우승한 뒤로 계속 우승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어렵게 우승을 쟁취한 만큼 기쁘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무등리그 MVP에 오른 자연환경 최용희(37)는 “초반에 점수를 많이 벌려놔서 쉽게 갈 줄 알았는데, 상대가 무섭게 따라붙는 바람에 생각보다 어렵게 풀렸다. 역시 실력 있는 팀이다”며 엄지를 치켜올렸다.

에어패스파죽지세는 지난해 열린 제 10회 무등기 사회인야구대회에서 준우승을 거머쥐었던 강팀. 최용희도 “단단히 버리고 나왔는데도 쉽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팀원들 모두 실력이 출중한 선수들인데, 욕심을 부리다 보니 찬스를 놓치곤 합니다. 그래서인지 오늘도 아슬아슬한 경기였어요. 그래도 감독님이 주루와 진루타에 집중하라고 조언해주셨는데, 그 전략이 주효한 것 같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야구를 시작한 16년동안 사회인야구를 해 온 최용희는 유망없이 실력을 발휘했다. 그는 3타수 2안타 2볼넷을 기록하며 팀의 우승을 견인했다.

최용희는 “후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은 구단주님과 개성 강한 팀원들을 하나로 묶어 준 감독님 덕분에”라고 공을 돌렸다. 이어 “다음 목표는 2연패다. 내년 열리는 무등기 대회에서도 꼭 우승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영광야구소프트볼협회 최영민 회장

## “영광 야구 열기와 인프라 널리 알리고

## 안전한 대회 성공 마무리 기쁩니다”

광주·전남 사회인야구인들의 명품대회로 꼽히는 무등기 야구대회가 영광에서 뜨거운 열전을 마무리했다.

처음 영광에서 치러진 이번 대회에는 많은 이들이 숨은 주역이 됐다. 영광야구소프트볼협회도 수준 높은 대회와 야구 동료인들의 즐거운 경기를 위해 물심양면 노력하면서 그라운드바 ‘MVP’가 됐다.

최영민 협회장은 “안전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대회를 마무리하고, 영광도 알릴 기회가 돼서 기쁘다”고 대회를 마무리한 소감을 밝혔다.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영광의 야구 열기와 인프라는 상당하다.

대회가 치러진 영광대마산단야구장은 좌·우축 96m, 중앙펜스까지 거리는 115m로 정규규격을 갖추고 있다. 조명탑까지 설치돼 야간 경기도 가능하다.

내년 시즌에는 인조잔디를 깔고, 좌·우축 안전펜스도 보강할 계획이다.

좋은 시설을 갖추면서 올 시즌 대학리그에 뛰어난 ‘신생팀’ 조선이공대도 이곳을 연습장 삼아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조선이공대 학생들은 주소도 영광에 두고 합숙 생활을 하고 있다. 김준성 군수를 중심으로 영광군에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면서 ‘야구 고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

최 회장은 “조선대이공대가 영광으로 올 수 있도록 영광군에서 많은 도움을 줬다. 또 폐교를 매입해서 숙소 겸 다양한 시설



을 갖춘 클럽 하우스를 마련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며 “아마추어 팀들이 영광을 전지훈련지로 찾을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고 언급했다.

폐교를 활용해 야구대회와 동계훈련지로 영광을 알리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에도 도움을 주고 싶은 게 최회장의 바람이다.

그는 “어렸을 때 야구 선수를 꿈꿨는데 (야구부가 있는) 광주로 전학할 형편이 안 됐다. 체조와 태권도를 했는데 항상 야구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며 “좋아하는 야구를 통해 영광에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기쁘다”고 언급했다.

조선이공대 야구부 유지와 무등기 대회를 통해 야구를 알린 협회는 유소년 야구 육성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3년 전 운영했던 유소년 야구팀이 아쉽게 실패하면서 공공스포츠클럽 형태로 유망주들을 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도전도 시작했다.

최 회장은 “영광은 야구 열기가 뜨거운 곳이다. 13개 사회인 야구팀이 있고, 600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번 무등기 대회에도 많은 관심들을 보였다. 영광 야구를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됐다. 앞으로도 영광을 야구 도시로 만들고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